社說

화염병은 그만 두자

—法治주의 하의 示威文化—

지난 일요일에 서울에서는 한동안 수그러들었던 집단시위가 몇군데에서 있었다. 그 중엔 利害集団의 권익신장을 주장하는 단순한 단체행동의 성격을 띤 것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정치적 불만을 결집하여 사회문제화하려는 政治운동의 성격이 강한것들이었다.

시위가 어떤 목적의 것이든 우리가 용훼하고 싶지는 않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사회에서 크고 작은 이익집단들이 자기들의 권익과 주장을 펴기위해 정당한 활동을 하는데 누가 간섭할수도 없다.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나라의 이익집단들이 合法的이고 合理的인 집단의사표현을 하는라고 천군데 만군데에서 시위를 한들 걱정해야할 이유도 없다.

하지만 문제는 그 示威들이 法治主義에 순응하는 시위방식을 외면하고서 그들 이외의 제삼자인 시민들의 權利를 침해한다는데 있다. 이익집단들의 시위는 흔히 자기들의 주장과 요구의 正当性만을 過信하는나머지, 못된 사람들이 지키고자 하는 나라의 法질서를 깨는데에 하등의 망설임도 없다.

우리는 물론 法至上주의의 맹점과 한계도 알고 있어서 무도한 독재자가 法의 자의적인 적용과 해석으로 선량한 民主市民의 삶을 만신창이로 만든 시대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法초월적인 市民의 궐기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우리사회의 누구도 국민의 의사에 따라 合憲的으로 출범한 정부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더우기 국민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法질서를 거부할 수는없다.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이 나라의 「法의 支配」를 무시하고 無政府的인 폭력·亂動을 벌일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는 집단시위라는것이 흔히 비이성적인 群衆心理가 주도하게 마련이고, 과거의 타성도 있기때문에 過激化양상을 쉽게 탈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위를 하면 언제나 不法과결화해야한다는 그릇된 관념과 타성이 정당화 될수는 없다.

집단 의사표시라고해서 法질서를 지키며 조용히 할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합법적으로 온건한 의사표시로 여론의 지지를 얻고 달국의 관심을 환기하는 편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일수 있다는 것을 시위자들은 알아야 한다. 집단시위자들이 공권력에 맞서 돌과 화염병을 던지고 차도와 건물을 점거하며, 기물을 파손하는등 과격·난동화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시위자나 경찰에 국한하지않고 주변상점과 택시 등 무고한 시민들에게까지 미친다는것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어떤 시위자들은 불법시위를 자책하기는커녕 自尊心을 大에 빠져 옳은 일을 한다는 착각한다.

정의와 민주를 앞세워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남의 人權을 침해하고도 이나라밖에는 없을것같다. 그 責任의 일단은 정부에도 있음에 틀림없다. 政治力이 얼마나 無能하고 公權力이 얼마나 不信되었으면 큰소리나 치고 집단시위나 벌여야 정치인들의 관심을 끌고 이익도 챙길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을까.

이제 정부건 시위자들이건 이 같은 그릇된 과거의 행태를 청산할 때가 되었다. 진정으로 이나라를 만들려고 생각한다면, 누구도 「法이 지배하는 平和」를 깨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어야겠다.

샴푸使用 警告

보건사회부는 시판중인 샴푸를 사용한 뒤 충분히 씻어내지 않으면 두발이 빠지거나 변색될수 있다고 지적, 「사용후 충분히 수세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제품에 명기하도록 대한화장품공업협회를 통해 생산업체에 지시했다고 한다. 그런 주의문이 지적해 있으면 없을 때보다는 샴푸를 사용할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소비자들이 관심을 더 가질 수 있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경고문이나 주의문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담배곽에 적혀 있는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가 담배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보다 강도가 짙은 미국담배의 「보건장관경고」흡연은 폐암, 심장병, 기종을 일으키며, 임산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음」이라는 경고도 실제로 얼마나 담배소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의문이다.

샴푸를 사용했으면 충분히 물로 씻어내야한다는 것정도는 상식에 속한다. 물론 「충분히」가 어느정도를 말하는것인지가 문제가 될수는 있을것이다. 하지만 샴푸를 사용하고 난뒤 어느정도(충분히) 물로 씻어냈는데도 머리털이 빠지고 그 색이 변한다면 그것은 경고문이나 주의문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더구나 보건사회부가 그런 관정을 내렸다면 많이다.

우선 관계당국은 시판되고 있는 샴푸가 두발은 물론, 신체의 다른부분에도 유해한것이 아닌지 확인해야할 것이다. 아마도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지 모른다. 두발이나 신체 다른부분에 유해한 샴푸가 제품으로 팔릴 있도록 허가를 받았을리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체에 좋을수있는 위험이 관련되어 있는 일이므로 이 확인은 끊임없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관계당국은 그런 제품이 허가사항대로 제대로 제조되고있는지도 계속 확인해야 한다. 또 처음부터 그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되어 유통되고 있는 제품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제품을 사서 쓰는 대량소비업체도 문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샴푸를 포함한 모든 세제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다. 아무리 인체에 안전하게 만들어졌다고 해도 샴푸는 역시 합성세제의 하나다. 그 샴푸로 두발이 안전하게 깨끗해질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우리 하천이 오염되고 마는 것이다. 합성세제로 오염된 하천은 다시 깨끗하게 만들기가 어렵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된 그 물을 다시 마실수 밖에 없다.

합성세제는 분명히 문명의 혜택이다. 이미 우리 생활은 합성세제 없이는 운영할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 부작용의 심각성이 분명한 이상 그대책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생산업체는 인체에 대한 부작용이나 하천오염을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내야하고, 관계당국은 그런 제품만이 소비자의 손에 들어갈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소비자도 이제는 세제를선정할 때 그효과뿐 안전성과 함께 공해요인까지 함께 고려해야하고, 목적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을 사용할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拉北도릴유공자 22명 표창

3·1절에 趙素昂·金奎植·安在鴻선생등 포함

보훈처 업무보고

국가보훈처는 정부의 북방정책에 맞추어 趙素昂 金奎植 安在鴻선생등 6·25때 납북된 독립유공자 22명을 오는 3·1절을 기해 표창하고, 해외거주 독립유공자의 모국방문과 해외에있는 독립운동사료의 발굴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李相淵보훈처장은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盧泰愚대통령에게 금년도업무보고를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훈처가 표창키로한 납북독립유공자 22명은 과거 상해임시정부에서 활동했거나 3·1운동관계자및 의열단소속인사들이다.

보훈처는 또 해외순국선열 유골봉환대상자 93명중 姜相鎬열사등 5명의 유해를 봉환·국립묘지에 안장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휴양시설제공확대를 위해 서울보훈병원의 병상규모를 현재 4백병상에서 5백병상으로 늘리고 부산보훈병원은 환경이 쾌적한 다른지역으로 이전, 2백병상규모로 신축하겠으며, 50억원의 예상으로 서울근교에 2백병상규모의 장기요양시설을 올해안으로 착공, 오는 91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보훈처는 이어 보훈기금증식을 위해 경기도용인군모현면에 건설한 88클럽장의 회원권을 일회금에다 보훈성금을 붙여 일반인에게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밖에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국민정신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생존해있는 독립지사의 독립운동증언을 녹음, 보존하고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의 전기를 발간, 보급키로 했다.

浦項工大·고능물리硏 방사광 가속기 건설-운영협력 假調印

포항공대와 중국 고능물리연구소간에 방사광 가속기건설 및 운영에관한 상호협력협약이 가조인돼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과학기술협력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金浩吉 포항공대학장은 30일 『국내최초로 방사광가속기를 건설중인 포항공대와 중국과학원산하 고능물리연구소가 지난해12월 기술협력 예비협약서에 가조인했다는데 밝혔다. 金학장은포항공대측은오는2월11일부터15일까지 중국고능물리연구소를방문, 두기관간의 기술협력협약에 정식으로 조인하고 각종부품 구매및 기술인력교환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게된다.

◇30일 東京에 도착한 金泳三 민주당총재가 이날오후 다케시타 日本수상을 방문, 환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東京=聯合電送】

金泳三총재, 다케시타수상 만나

【東京=洪準浩특파원】 金泳三민주당총재는 日本사회당 초청으로 오는 2월4일까지 일본을 공식방문하기위해 30일 오전 KAL機편으로 출국, 이날 낮 東京에 도착한뒤 이날 저녁 다케시타수상을 예방하고 약 30분동안 공동만찬 겸 환담을 가졌다.

金총재는 이 자리에서 다케시타수상에게 서울올림픽기간중 일본의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사할린교포 송환▲재일교포 법적 지위향상▲한국내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한일관계재정협력문제등에 대해 일본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다케시타수상은 한일 현안의 내용을 잘알고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부차원의 협조를 약속하고 『東北亞와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한일양국이 계속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확대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金총재는 이에앞서, 일본의 무성으로 우노외상을 발탁, 달북 정상회담및 확대정상회담에 들어갔는데, 그동안 대통령부인 金玉淑여사는 호크총리부인과 2층으로 자리를 옮겨 환담.

한편 盧대통령이 이날저녁 호크총리를 위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베푼 만찬에는 金大中평민당총재도 부인 李姬鎬여사와 함께 참석했는데, 金총재가 먹시도차림으로 공식모임에 나타난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주변의 눈길을 모으기도.

聞外聞

"테니스 頂上회담 기대"

◇…盧泰愚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30분 韓-濠정상회담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 호크 濠州 총리를 鎬연사와 가벼운 포옹과 악수로 인사를 교환, 盧대통령은 호크총리가 현관앞 탁자에 마련된 방명록에 서명을 끝내자, 집무실로 안내, 『여기가 내집무실』이라고 소개.

盧대통령은 단독회담에 앞서 『지난해 11월 濠州를 방문했을 때는 함께 골프를 하며 캥거루의 인사까지 받도록 배려해주셨는데, 지금 이곳은 겨울이라 그같은대접을 못해드려 미안하게생각한다』고 인사, 호크총리는 盧대통령의 이같은 조크에대선 내일 오후로돌잔한 부부테니스를 기대한다고 웃으며 응답.

두사람은 이어 약30분간의 본관 현관에서 맞아 가벼운 포옹과 악수로 인사를 교환, 盧대통령은 호크총리가 현관앞 탁자에 마련된 방명록에 서명을 끝내자, 집무실로 안내, 『여기가 내집무실』이라고 소개.

盧대통령은 단독회담에 앞서 『지난해 11월 濠州를 방문했을 때는 함께 골프를 하며 캥거루의 인사까지 받도록 배려해주셨는데, 지금 이곳은 겨울이라 그같은대접을 못해드려 미안하게생각한다』고 인사, 호크총리는 盧대통령의 이같은 조크에대선 내일 오후로돌잔한 부부테니스를 기대한다고 웃으며 응답.

朴대표 "그렇게 해야하나"

◇…30일열린 민정당 당직자회의에서는 盧泰愚 대통령의 중간평가의 信任연계발식 보였다. 한편 한 참석자는 『신임과 연계된 투표는 초헌법적이므로 그럴경우에는 국회해산, 정계개편은 당연한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신임투표 찬반론자 모두가 共感을 표시했다는 후문. 국회해산 등의 방법으로는 민정당전체의원의 자진사퇴등을 통한 총선 재실시, 치단체장의 직선과 국민투표를 질문는의, 『李총장의 발언은 중간평가로 특위정국을 적당히 마무리지어, 면죄부를 받으려하는 저의를 드러낸것』이라고비난. 李相洙대변인은 이날 회의후 이같은 분위기를 党論은아니나 대체로 모아진 의견이라는 전제속에 설명하고, 金大中총재가 말한 국민투표 등 정치일정을 시사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개인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北方문제등 의견 교환"

◇…민주당의 金鍾泌총재는 30일아침 青丘洞자택에서 訪美출국에 앞서 기자들과만나 『美상원외교위원들과 北方문제등 여러현안에 대해 격의없이 의견을 교환할 생각』이라고 밝히고 『나자신도 여러 얘기를 하겠지만 그쪽생각이 무엇인가를 들고 싶어 가는것』이라고 이번여행의 목적을 설명. 金총재는 이어 与野영수회도 「자리를 비우고」 싶은 생각이 작용했을 것은 이라며 『국내상황』에 초점을 맞춰 폭이하기도.

이날 평민당은 또 지금까지 金총재가 외국에 나갈때 많은 당원과 당직자가 출영해 줄지 않은 혼잡상을 벌였던 관행을 교정키 위해 출국인사및 귀국보고는 당에서하고 공항출영은 핵심당직자 3~4명으로 제한키로결정.

韓-日관계 재정립 강조

◇…5박6일 일정으로 30일 訪日길에 오른 金泳三민주당총재는 이날오후 東京에 도착, 숙소인 뉴오타니호텔에서 사회당의 이시바시前위원장과 1시간가량 면담한뒤 우노外相과 다케시타수상을 잇따라 예방.

金총재와 다케시타수상의 면담은 다케시타수상이 金총재의 최연소의원당선등 정치경력을 첫 화제로 삼는등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는데, 다케시타수상의 요청으로 약10분동안은 단독회담으로 진행돼 눈길.

金총재는 요담에 앞서 환담하면서 다케시타 수상에게 재일교포의 법적지위향상 등 한일간의 제반현안을 거론했고, 다케시타수상은 『현안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노력을 약속.

金총재는 이날저녁 사회당 고자 한다』며, 한국의 야당, 재야세력은 물론, 盛泰愚대통령의 민주화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

金총재는 이시바시 前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지난주역시 사회당조청으로 訪日했던 北韓논동당대표들의 활동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東京=洪準浩특파원】

民正「信任연계」贊反兩論… "부결땐 国会해산"의견일치

金泳三 民主총재, 日수상 요청으로 10여분간 단독회담

金泳三총재 訪美출국 美 지도급인사 만나

金鍾泌공화당총재는 美上院외교위원회의 초청으로 11일간 美国을 방문하기위해 30일오전 출국했다.

金총재는 訪美기간중 美의회및 행정부인사들과 한국정국 및 北方외교, 통일문제 등 양국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나눈뒤, 2월10일 귀국한다.

民正, 国会질문자 선정

민정당은 2월 임시국회 첫정부 질문자를 30일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정치=李致浩 金璡洙 丁海男▲통일외교안보=金顯煜 金鍾坤 李相河▲경제=崔雲芝 徐相穆 李起彬▲사회=金泰鎬 金漢圭 李康熙

金日成 "부시와 회담용의 있다"

【東京=聯】 북한 金日成은 『미국정부가 진심으로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를보이면 미국대통령과의 회담에 응할용의가 있다는 말한것으로 共同통신이 30일 일본에서 발행되는 북한계조선통신을 인용, 보도했다.

조선통신은 金日成의 이같은발언이 지난해10월29일 이탈리아방송협회의 질문에 답변하는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金日成은 답변에서 『미국정부는 긴장완화추세에맞춰 한반도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日成은 한반도 통일이고려민주연방공화국 설립을 통한 방법으로 추진돼야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編輯人協 오늘 定總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회장 權五琦)는 31일 오후2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층)에서 89년도 제37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動靜

▲전국 환경지청장 회의 李相培환경청장은 30일 전국 환경지청장회의를 소집, 새해업무계획을 시달했다.

人事

▲제1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朴斗煥

▲제2〃張秀吉▲총무이사韓基贊▲재무〃河竹鳳▲사업〃李東旭▲섭외〃金平祐

▲평민당 원내부총무 鄭大椅▲보험3〃金永麟▲홍보〃李漢衍▲감사실장李哲民▲재시협1부장朴弘圭▲부지부장尹德鎭▲개발부장馬茂▲대전〃孫基晟

▲서강대 대학원장張世熹▲부총장車河淳▲문과대학장金相俊▲교무처장鄭然燮▲학생〃尹汝德▲총무〃周永樂▲기획〃崔昌燮▲재무〃朴禧允▲편집국장 李德浩▲사무차장(기획담당) 任鍾淳▲민원봉사실 차장 尹百鉉

▲서울대 대학원장金榮國▲부총장金榮國▲문과대학장金相俊▲교무처장鄭然燮▲학생〃尹汝德▲총무〃周永樂▲기획〃崔昌燮▲재무〃朴禧允▲편집국장 李德浩▲사무차장(기획담당) 任鍾淳▲민원봉사실 차장 尹百鉉

▲이공대 대학원장張世熹▲부총장車河淳▲문과대학장金相俊▲교무처장鄭然燮▲학생〃尹汝德▲총무〃周永樂▲기획〃崔昌燮▲재무〃朴禧允▲편집국장 李德浩▲사무차장(기획담당) 任鍾淳▲민원봉사실 차장 尹百鉉

▲사회교육원 朴炳昭▲학생〃尹汝德▲교무처장鄭然燮▲총무〃周永樂▲기획〃崔昌燮▲재무〃朴禧允▲편집국장 李德浩▲사무차장(기획담당) 任鍾淳▲민원봉사실 차장 尹百鉉

▲경희대 李相培▲학생〃尹汝德▲교무처장鄭然燮▲총무〃周永樂▲기획〃崔昌燮▲재무〃朴禧允▲편집국장 李德浩▲사무차장(기획담당) 任鍾淳▲민원봉사실 차장 尹百鉉

▲동국대 李相培▲학생〃尹汝德▲교무처장鄭然燮▲총무〃周永樂▲기획〃崔昌燮▲재무〃朴禧允▲편집국장 李德浩▲사무차장(기획담당) 任鍾淳▲민원봉사실 차장 尹百鉉

▲한양대 李相培▲학생〃尹汝德▲교무처장鄭然燮▲총무〃周永樂▲기획〃崔昌燮▲재무〃朴禧允▲편집국장 李德浩▲사무차장(기획담당) 任鍾淳▲민원봉사실 차장 尹百鉉

▲홍익대 李相培▲학생〃尹汝德▲교무처장鄭然燮▲총무〃周永樂▲기획〃崔昌燮▲재무〃朴禧允▲편집국장 李德浩▲사무차장(기획담당) 任鍾淳▲민원봉사실 차장 尹百鉉

▲경기대 李相培▲학생〃尹汝德▲교무처장鄭然燮▲총무〃周永樂▲기획〃崔昌燮▲재무〃朴禧允▲편집국장 李德浩▲사무차장(기획담당) 任鍾淳▲민원봉사실 차장 尹百鉉

▲국민대 李相培▲학생〃尹汝德▲교무처장鄭然燮▲총무〃周永樂▲기획〃崔昌燮▲재무〃朴禧允▲편집국장 李德浩▲사무차장(기획담당) 任鍾淳▲민원봉사실 차장 尹百鉉

▲숭실대 李相培▲학생〃尹汝德▲교무처장鄭然燮▲총무〃周永樂▲기획〃崔昌燮▲재무〃朴禧允▲편집국장 李德浩▲사무차장(기획담당) 任鍾淳▲민원봉사실 차장 尹百鉉

▲서울대 李相培▲학생〃尹汝德▲교무처장鄭然燮▲총무〃周永樂▲기획〃崔昌燮▲재무〃朴禧允▲편집국장 李德浩▲사무차장(기획담당) 任鍾淳▲민원봉사실 차장 尹百鉉

▲연세대 李相培▲학생〃尹汝德▲교무처장鄭然燮▲총무〃周永樂▲기획〃崔昌燮▲재무〃朴禧允▲편집국장 李德浩▲사무차장(기획담당) 任鍾淳▲민원봉사실 차장 尹百鉉

▲고려대 李相培▲학생〃尹汝德▲교무처장鄭然燮▲총무〃周永樂▲기획〃崔昌燮▲재무〃朴禧允▲편집국장 李德浩▲사무차장(기획담당) 任鍾淳▲민원봉사실 차장 尹百鉉

▲한국외대 李相培▲학생〃尹汝德▲교무처장鄭然燮▲총무〃周永樂▲기획〃崔昌燮▲재무〃朴禧允▲편집국장 李德浩▲사무차장(기획담당) 任鍾淳▲민원봉사실 차장 尹百鉉

▲한국체